

2001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 ▶방언반 학술답사 보고서
- ▶고전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 ▶현대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방언반 학술답사 보고서

1. 편성

(1) 기간

2001년 5월 9일(수) - 5월 12일(토)

(2) 지역

강원도 정선군 나전리, 용탄리 일대

(3) 참가 인원

지도교수 : 이병근, 송철의, 김창섭, 이현희

조교 : 이승희

대학원생: 김봉국, 임석규, 이병기, 무라타, 이지영, 안희제, 김세환,

김선영, 채숙희, 이안구, 변부연, 신서인, 이서란

학부생: 안소진, 신용남, 김정은, 최소영

(이상 22명)

2. 답사 일정

2001년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의 일환으로 국어학 방언조사반은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원도 정선군 일대를 답사하였다. 이병근, 송철의, 김창섭, 이현희 선생님의 지도하에 총 17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3개 조로 나뉘어 정선군의 나전리와 용탄리에서 방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답사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9일 오전 9시까지 사당역에 집결하여 출발하였다. 오후 1시경 정선읍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마친 후, 설총과 율곡 이이가 공부하였었다는 이성대(二聖臺)가 있는 노추산으로 출발하였다. 노추산은 해발 1,322m의 경사가 가파른 산으로, 정상에 있는 이성대를 둘러보고 하산하는 데까지 약 4시간이 소요되었다. 오후 7시 경 정선읍내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한 후 오후 9시 경 숙소인 가리왕산 휴양림 내의 산림문화휴양관에 도착하였다. 저녁에는 간략히 다음 날 조사 일정 및 유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10일은 조별로 방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조는 나전리, 2조는 용탄리, 3조는 나전리에서 각각 조사하였다. 각 조에서 약 400여 개의 어휘를 조사하였는데, 조사 대상 어휘가 조별로 중복되게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총 900여 개의 어휘를 조사하였다. 이와 별도로 문헌반에서는 택당 이식(李植)의 손자인 이자의 교택을 방문하였다. 본래 그 곳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들을 관람할 예정이었는데, 1997년 500여 권의 고서가 모두 도난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었다. 각 조별 조사를 마치고 저녁 6시 경 정선읍에 집결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정선 아라리를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정선 아라리를 들려주신 할머니께서는 가사를 달리 하여 정선 아라리를 약 20편 가량, 두 시간에 걸쳐 들려주셨는데,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가사나 자연스러운 가락 등이 전문적인 전수자나 기능보유자의 노래보다도 더 인상적이었다.

5월 11일 오전에는 동강을 따라 광하리, 가수리를 거쳐 고성리에서 고구려 때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혹은 삼국시대 이전에 축성되었다는 설도 있음) 고성산성을 둘러보았다. 남면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 경 고한읍에 있는 정암사에 도착하였다. 정암사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중 하나로 마노석으로 쌓은 모전석탑인 수마노탑이 특히 유명하다. 오후 4시 경 물운대를 비롯한 화암 8경을 둘러보고 화암약수에 들렀다가 오후 6시경에 정선읍으로 돌아왔다.

답사 마지막 날인 5월 12일은 아침 9시에 숙소에서 출발하여 오후 1시경 사당역에 도착하여, 간략히 해단식을 겸하여 점심 식사를 하고 해산하였다.

이번 국어학 답사는, 방언 답사에 처음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방언 조사 방법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체험하고, 정선 아라리라는 삶에서 우러나온 노래를 통해 우리 문화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3. 방언조사 결과

기호

A>B A가 B보다 더 많이 사용됨

: 장음부호

ˇ 상승조

ˊ 고조

단어 경계

음운체계

1.1. 단모음

기	기
---	---

귀	귀
---	---

게	게:
---	----

개	개:
---	----

외국	öguk
----	------

회사	hö:sa
----	-------

되-(가)	되르' 된다'
-------	---------

되-(硬)	되^다, 꽈^진다
-------	-----------

말(斗)+이	마리'
--------	-----

말(馬)+이	마'리
--------	-----

말(語)+이	마^리
--------	-----

눈(眼)+으로	누누루(눈+으로)
---------	-----------

눈(雪)	누^니'
------	------

밤(夜)+이	바미'
--------	-----

1.2. 이중모음

醫師	으사'/이사'
意味	이미
醫院	이원'
議論	으논/이논
의자	으'자
危險	우'염
위장	위장'
남의집	나모집
櫃	궤~
物件	물건'
햇대	달그홰
꽹과리	꽹가리
꽝	꽁으는(꽁+은), 꾀~으는, 쟁'끼(수꽝), 까투'리(암꽝)
권투	권^투
원수	원수
원숭이	원세~이
대궐	대~골
삼월	사멀
왕+이]	와~'이]
과부	과부
환갑	육춘', högap, 향^갑
科學	과'거
사파	사과>능금'
폐	폐
계수나무	게~수낭그
삠	삃
暭	삃

별	별~
겹겹이	겨껴비
벼슬	벼'실
비녀	비네'>비느
무명	무명
유리	유리'
규칙	규'칙
석유	세구
요	요
효자	효~자
비료	비로, 토비

2. 의 변화

2.1. 단모음

2.1.1. 어두

마디	매디
그늘	음'달
닭	달'기, 달'게 달'그, 닥쁨됨
바르-	바르능(바르+는), 빌려(바르+어)

2.1.2. 비어두

마늘	마'날, 마늘
바람	바람'
배추	배~추
다르-	다르다, 달'라두/달'리두
고프-	고푸다, 고풍 거
모르-	모른'다 몰려두/몰라두

모자라-	모~자린다
빠르-	빠르다, 빠르조(빠르지요)

2.2. 이중모음

딸기	딸~기
도끼	도~끼

3. 예>이

배개	배개, 퇴침
별+도	별~도
메-(負)	멘~다
어레미	보두룬체, 얼' 게미
편지	편~지
벼룩	베' 리기#, 빈대'
벼루	베루, 연석
세-(數)	세~고
페-	펜'다

4. 전설모음화

쓸개	썰개, yll
쓰-	찐다, 쓴다
가슴	가슴
부스럼	부시럼, 벼'짐
사슴	사심
그으름	끄으르미#
그릇+이(야)	글씨, 그릇이야

5. 움라우트

끓이다	끄린다
-----	-----

현병	현·병
벗기다	베낀다
학교	핵교
방방이	방방이
맡기다	매킨다
사람+이	사·래미
밥+이	바비'
가렵다	개롭다
굶기다	꿩기능 거
옮기다	윙개(옮기+어)
의복+이	우티

6. 오>우

소금	소금/소굼
오줌	오줌
단추	댄추
모두	모도

7. uy>u

거미	거무
종이	조'이, 조'오
오디	오두
무늬	무니

8. ㅂ

여워다	패래^따(패리+었다), 야웨따(야위+었다)
졸다	조부능 거
뙤리	또바리, 또배
다리미	대래비

어휘체계

1.1. 농사

1.1.1. 경작

벼, 베이삭	배, 베이삭
보습	보구레
극쟁이	씨그레, 훌쨍'이
번지	번지, 밀개
호미	호무, 호무짜루
호미씻이	호무씨세
괭이	과~이'
쇠스랑	쇠시랑

1.2. 타작

짚	이~찝, 지피'(짚+이)
새끼	새끼
광주리	광지리

1.3. 搗精

확	호박'
겨	게

1.4. 곡물

보리	보리
까끄라기	까불치
밭두둑	허'꼴
밭고랑	바'꼴
밭이랑	반니'랑
조	서:속, 조이'라(조이+라)

수수	수꾸
옥수수	강내~이

1.5. 蔬菜

무	무우
시래기	씨래기
고亢이	속'꼬개~'이
고구마	고고마
감자	감자
부추	분추
오이	murö
상추	부루'

2. 음식

2.1. 부식

김치	김치
고추	고치
두부	두부
메주	메주

2.2. 주식

솥+이]/을/에	소치, 소틀, 소테
가마	가매
조리	조'래이, 쌀로박
주걱	박쪽, 밥쪽
누룽지	누룽거리
승늉	승녕

2.3. 별식

가루	가루, 콩깔기, 떡깔그
흰떡	흰떡
식혜	단술, 감주

2.4. 그릇

시루	시루#, 실기#, 실그
바가지	바가지, 쪽빡

2.5. 부엌

부엌	정지
부뚜막	부뜨막
부삽	부삽
숯	수치, 수트, 수테
화로	화리
그을음	꼬으리미# 째'에따(끼었다)
냅다	시다, 시'굽다
데우다	데'우다, 뜨순'능 거

3. 가옥

3.1. 가구

시령	실광
서랍	빼다지

3.2. 방

마루	마루
돌찌귀	돌^찌구
문고리	뭉꼴
문지도리	문찌두리

3.3. 건물

사닥다리	새달#
기둥	지동
처마	처마
추녀	추~에
서까래	세까'래
낙수물	낙순물, 지실물, 지시랑끝(기슭끝)
고드름	고드레미#

3.4. 마당

뜰	압뜰, 뒤텔
---	--------

3.5. 우물

우물	우물
두레박	드래박
또아리	또배(蛇), 또바리(頭)

4. 의복

4.1. 세탁

빨래	빨래
인두	인두, 대래비
말리다	말류다, 말리고, mallyə

4.2. 복식

허리띠	허리띠
두루마기	두루막
치마	치매, 초매
고쟁	고재~이
버선	보선

짚신	집썬', 미트리
골무	골미
반진고리	반지끄륵
호다	호능' 거
박다	방능 거, 박음질'이고
솜	소개
목화	모콰
쐐기	쐐~기
누에	누~에
고치	꼬'치
번데기	번디'기
뽕나무	뽕이파'리

5. 신체

5.1. 머리

머리	면^상, 머'리가
가마	가'매
가르마	가리매
비듬	비늘
새치	새치

5.2. 얼굴

턱	텍
수염	ʃuyəm
볼+이	보리'
볼거리	볼거리
주름살	주름쌀

5.3. 눈

눈	누니
검은자위	거문동자
흰자위	흰자구
눈썹	눈썹프(눈썹+을)
소경	소~경, 쇠~경

5.4. 코·귀

코	코
입술	입술기, 입술개
혀	세
벙어리	벼~어리

5.5. 세수

비누	비늘
셋+어라	쎄'에라
목욕	모욕탕
목물	목간
거울	색경', 멘~경
빗	얼'게, 면빗,
얼레빗+이]	얼계비시
참빗+이]	챔비시

5.6. 상체

손(가락)	소누로, 송까락
배꼽	배꼽

5.7. 하체

허리	허리
궁둥이	방쉬~'이]

무릎+이	무루피
오줌	오倨
쥐(나다)	쥐가 난다
복사뼈	복쌍씨

5.8. 피부병

부스럼	부시렙#, 음^이]
사마귀	사:마구
두드러기	뜨'리, 두두래'기
땀띠	땀떼
주근깨	주근깨
여드름	이:드름
홍역	호역
갑기	고뿔, 강:기

5.10. 생리

딸꾹질	꽤:떼기, 패:띠기
사례	싸^례
트림	컬트림
재채기	재채기
졸음(졸립다)	자분다, 자부름'
방귀(뀌다)	방:구, 꿔능 거

6. 육아

6.1. 발달

돌+이	도리'
기저귀	지저구
지리다	지레띠(지리+었+다)
포대기	포대기

건는다 걸~른다

6.2. 재롱

곤지곤지	궤에미
도리도리	곤지곤지
	도리도리

6.3. 놀이

공기	공:기
윷	유치, 유트, 유테
도	뙤
개	개
걸	걸
윷	윤
모	모
썰매	썰매
연	연~

7. 인륜

7.1. 가족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형	혀~'이
언니	언'니
누나	누나'
아우타다	아시탄다

7.2. 결혼

며느리	메누'리
처녀	처~녀

사위	사'우
올케	올게'
시누이	시:누우
매형+이]	매혀~'이]
매제	매'제
시숙	시:숙
홀아비	홀아비
홀어미	과~부, 과~수

7.3. 친척

백부	백뿌
중부	중백뿌
숙부	삼촌

8. 경제

8.1. 마을

이웃+이]/에	이우지/이우제
마을	마알
마을가다	마실'간다
거스름돈	거시름돈

8.2. 대장간

8.3. 단위

마지기	함 마지기
마리	마리
쌍	쌍
켤레	커리
그루	항구루(한+그루)
자루	호무찌루

두름	드리미#
축	축
꾸러미	항 그레미

8.4. 수

하나+면	하나이면
둘	둘^
셋	서:이
넷	너:이
다섯	다서
여섯	여서
일곱	일고
여덟	여덜비, 여덜베, 여덜#
아홉	아호
열	열^
세다	세'에(세+어)
스물	수물
설흔	서른
마흔	마흔
쉰	쉰
예순	예쉰
일흔	이른
여든	여든
아흔	아흔
하루	하루
이틀	이틀
사흘	sahsl
나흘	nahsl
닷새	다싸
엿새	여싸

이레	이레
여드레	여드레
아흐레	아흐레
열흘	여를

9. 동물

9.1. 물고기(1)

고기	고기
지느러미	지래'미
아가미	아그미
마꾸라지	미꾸라지
피라미	피래'미
올챙이	올챙이, 올창재~이
개구리	깨구리
두꺼비	뚜께비

9.2. 물고기(2)

게	게:
새우	ſeu
다슬기	꼴배~이

고전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참가자(30명)

선생님 : 민병수, 이상택, 김병국, 서대석, 권두환

선배님 : 박종성, 최원오

조교 : 최현재, 심우장

대학원생 : 권정은, 노경희, 박이정, 이은주, 정진희(이상 박사과정), 김경
희, 김성준, 나수호, 박현숙, 안순태, 안준호, 윤경아, 이윤정, 조
수아, 최규백(이상 석사과정)

학부생 : 남은혜(1학년), 김서윤(3학년), 박민희(3학년), 강혜규(3학년), 김
동욱(3학년), 전상연(4학년)

답사활동

국어국문학과 2001년 정기 학술 답사 고전문학반은 서대석 선생님, 김병
국 선생님, 권두환 선생님, 민병수 선생님, 이상택 선생님의 지도 인솔 하에
2001년 5월 9일(수요일)에서 5월 11일(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청남도
당진군, 태안군, 아산시, 서산시 일대에서 문화유적 및 고적을 답사하고 돌
아왔다.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5월 9일 9시경에 사당역 근처 대공원 주유소
에서 전체 인원이 관광버스를 타고 함께 출발하였다. 새로 개통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오전 11시경에 서해대교를 넘어서 수덕사에 도착
하여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건축박물관, 사적 116호로 지정된 해미읍성,
풀위 있는 대웅보전을 갖고 있는 개심사,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마애삼

존불 등을 각각 답사하고 홍성에서 첫날 숙박을 했다.

5월 10일 9시에 아침식사를 마치고 둘째 날 일정을 시작하였다. 오전에는 마곡사에서 마곡사 답사와 마곡산 등반을 함께 했다. 오후에는 칠갑산 장승 마을을 둘러보고 안면도 방조제를 지나서 방포 해수욕장에서 서해안 일몰을 함께 감상하였다. 둘째 날 숙박지는 안면도 자연 휴양림이었다. 여기에서 이틀 동안의 답사 일정을 정리하고 답사 활동에 대한 평가회와 뒷풀이 모임을 가졌다.

다음 날 5월 11일 아침 식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휴양림을 떠나 온양 민속박물관을 관람하고 거기에서 점심을 같이 한 후 서울로 출발하여 오후 5시에 출발지인 서울 사당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번 고전문학반 답사를 통하여 우리는 고전문학과 관련된 문화유적지, 박물관 등을 돌아보면서 문현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현장의 모습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답사를 통하여 우리 고전문학반은 선생님과 대학원생, 학부생 사이에 더욱더 긴밀하고 돈독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고전문학반 답사를 격려하기 위하여 찾아와, 격려의 말씀과 심적·물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생님, 그리고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바쁜 일정과 적은 활동 비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답사 활동에 참석해 준 대학원생, 학부생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대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1. 결단식 및 편성

통산 12번째인 금번 학술답사를 위해 5월 2일 예비모임 및 결단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답사를 위한 준비절차를 숙지한 후 답사 예정지인 전암 영광 및 해남 일대의 문인 현황 및 지역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조 편성을 하였다. 답사 목적지인 전라남도 영광, 담양, 해남 일대는 남도 풍물의 중심지로 특히 본과의 오세영 교수님의 연고지이기도 해 시인의 삶과 남도 정서라는 매우 흥미로운 테마를 답사의 중심 주제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1) 기간

2001년 5월 9일(수)~11일(금)

(2) 지역

전라남도 영광, 담양, 해남 일대

(3) 참가 인원

지도교수 : 김윤식, 오세영, 조남현, 신범순

인솔조교 : 서형범

박사과정 : 강심호, 김옥성, 배주영, 소래섭, 손유경, 윤영실, 전우형,
이경재, 이영아, 최혜림 (이상 10명)

석사과정 : 김지영, 박정희, 양소영, 이세봄, 이정엽, 백지혜, 송민호,
신형철, 이경현, 이수정, 이영석, 정여울, 조연정, 차미령
(이상 14명)

학사과정 : 박어령, 이은실, 이형진, 김수영, 이정은, 정주아, 홍주형,
김주현, 박지혜, 김선호 (이상 10명)

2. 답사일정

2001년 5월 9일 반포 킴스클럽 앞에서 8시에 집결하여 답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점검하고 8시 30분 전라남도 영광으로 출발하였다.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영광읍내에 도착하여 조운 생가를 답사하였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에 위치한 시조 시인인 조운의 생가는 지역 문인들의 현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열과 관련이 있던 시인의 전력 탓에 일가의 풍부한 증언 자료 및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아쉬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념으로 인해 소중한 문화 유산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했던 우리 현대문학의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한국철학의 현대적 연구에 헌신해온 원로 학자 정종(鄭縱) 선생이 함께 하며 조운 선생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들려주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후 영광군 불갑면에 있는 불갑사(佛甲寺)를 방문하였다. 불갑사(佛甲寺)는 호남의 명찰(名刹)로 유서 깊은 고찰(古刹)이다. 삼국시대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인도스님 마라난타존자(摩羅難陀尊者)가 남중국 동진(南中國 東晉)을 거쳐 백제 침류왕 1년에 영광땅 법성포로 들어와 모악산에 최초로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이 절이 제불사(諸佛寺)의 시원(始原)이요 유품이 된다고 하여 불갑사라고 이름지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최초의 흔적을 간직한 고찰이 남도의 온화한 풍광 속에서 누 천년 불법을 전하는 현장에서 각박한 현대인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었다.

불갑사 인근에서 토속 음식인 남도의 보리밥으로 맛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세영 선생님의 생가를 향했다. 좁은 국도에서 벗어나고도 비포장 도로를 30여분 이상 달려 도착한 선생님의 생가에는 선생님의 형수님께서 정성으로 다해 준비해놓으신 남도의 맛깔스런 음식이 점심식사를 너무 맛있게 먹

은 것을 후회하게끔 만들며 모두를 즐겁게 하였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전라남도 장성군 횡룡면에 위치한 필암서원으로 향했다.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 선생을 추존하는 곳으로 하서 선생은 호남유림의 종장으로 추앙받았으며, 22세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31세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34세때 세자 시강원설서가 되신 호남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시다. 이곳에 보관된 고문서와 서책들은 조선중기 이후 지방 교육제도 등 당시의 사회상과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곳은 하서 선생의 먼 일가가 되시는 어른이 돌보고 계셨는데 우리의 문화재와 전통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이곳의 장판각은 하서 선생의 문집을 발간할 때 사용한 목판(645매)으로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 구문집판 261장, 신문집판 315장, 하서선생 유목초천자판 8장, 필법판 3장, 고백행판 12판, 무이구곡판 4장, 백련초해 13장, 상량문 등이 보존 소장되어 있는데도 최근에야 관련 부처의 지원으로 첨단 설비를 구비하여 훼손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아쉬워하셨고, 그간의 경과에 대한 어르신의 말씀을 들던 일행들 역시 모두 그동안의 무관심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예정되었던 면양정 및 송강정 답사를 간단히 마치고 숙소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8시가 다 된 시각이었지만 늦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소래섭의 「조운 시조 연구」, 석사과정 양소영, 이새봄 공동의 「존재」의 시-오세영론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소래섭의 연구발표문이 조운 시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극적인 의미화에 목적을 둔 연구논문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이새봄과 양소영의 공동 발표문은 오세영 선생님의 시집들을 관류하는 「존재」라는 중심 테마의 다양한 변수를 균형있게 살피는 비평문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어 균형잡힌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5월 10일 답사 둘째 날 일정은 소쇄원과 식영정 및 가사문학관 관람으로 시작하였다. 소쇄원은 양산보(梁山甫, 1503~1557)가 은사인 정암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 기묘사화로 능주로 유배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출세에의 뜻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숨어살기 위하여 꾸민 별서정원(別墅庭園)이라고 한다. 우리 전통 건축술의 절정이며 현대에 와서야 다시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건축관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점에 비추어볼 때

매우 자랑스럽고 놀라운 성과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후원을 따라 자리잡은 계류구역은 유락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내원(內園)구역은 제월당(霽月堂)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당(堂)과 오곡문(五曲門) 사이에는 두 계단으로 된 매대(梅臺)가 있으며 여기에는 매화, 동백, 산수유 등 의 나무와 기타 꽃나무가 심어졌을 것으로 여겨졌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나마 시원한 바람과 푸르른 실록에 취해 몸을 추스른 후 일행은 송광사로 향했다.

송광사(松廣寺)는 우리나라의 오랜 불교 역사 속에서 전통승맥을 계승한 승보사찰(僧寶寺刹)로, 합천 해인사(法寶), 양산 통도사(佛寶)와 더불어 삼보사찰(三寶寺刹)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지금부터 800년전 보조국사 지눌이 당시 타락한 불교를 바로잡고 우리 불교의 전통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정혜결사(定慧結社)를 벌였던 도장이며 지눌, 진각을 비롯한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는 외국 승려가 수도하는 국제 선원으로 한국불교문화를 연구하는 도장이기도 한 탓인지 매우 커다란 규모가 인상적이었다. 특히 이곳의 총무스님께서 직접 일행을 초청하여 다과를 베풀고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셔서 일행들은 불법의 향기를 흡뻑 맛볼 수 있었다.

송광사에서의 일정이 지나치게 길어져 낙안읍성 관람을 간단히 마치고 김승옥의 고향이자 조정래 작 『태백산맥』의 배경이 되는 전라남도 벌교로 향했다. 이곳에서 낙조와 갈대의 황홀한 조우를 보려 했으나 시간이 늦어져 아쉬움을 뒤로한 채 숙소로 향했다. 선암사 인근의 숙소에 여장을 풀고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였으나, 일정이 많이 늦어져 이를 간의 일정을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 지역 출신의 현역 시인 송수권 시인이 침석하여 자작시 낭송 및 시작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으며 학생들 역시 시인과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의 깊이와 시인의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답사 마지막날인 5월 11일에는 선암사 답사를 하였다. 박사과정 이경재의 「『태백산맥』의 서사구조 고찰」, 석사과정 차미령의 「김승옥 읽기」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선암사 뒤편 수풀 속에서 가졌다. 탁 트인 산길을 30여분 거슬러 올라가 발표회를 갖는 새로운 경험은 일행에게 오랜만의 여유로운 휴식을 맛보게 하였으며, 김승옥과 조정래라는 두 작가의 거리만큼

이나 연구발표문의 지향 또한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어 이 또한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선암사 경내를 자유로이 둘러보고 유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후 차내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기로 하고 귀로에 올랐다.

이번 현대문학반 답사는 금년 8월에 정년을 맞으신 김윤식 선생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간의 오랜 강단 생활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학생들과 좀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모두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여정이었다. 이와 함께 현역 시인이신 오세영 선생님과 송수권 시인을 함께 모시고 연구 대상으로서의 시인과 인간으로서의 시인이라는 일견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두 대상을 함께 경험하면서 문학의 진술함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도 하였다.